

‘곰게 사는 분들’ 안에 맑은 스님의 숨결이...

김선우 시인

집 바깥에서 공양을 할 때 늘 까다롭게 고르지만 낭패를 볼 때가 많아 집에서 먹는 밥이 좋다는 김선우(43) 시인과 오대산 산나물을 갈무리해 쓴다는 소박한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다.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책 《법정, 나를 물들이다》를 보니까 법정 스님을 다 뵈던 분들이인데, 전 스님을 뵈 적이 없잖아요. 오늘까지도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인터뷰가 도움이 되거나 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말을 하면서 웃는 표미 불멸처럼 해사하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한두 분쯤은 법정 스님과 현품대조를 하지 않은 분이기를 보았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시대와 거리를 뛰어넘어 함께 있지만,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곁에 있어도 심만 팔친 리 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스님 말씀을 새기며.

“정신이 없는 봄이에요. 해마다 봄이 되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가 불편할 일들이 우리사회에 꼭 생기는 것 같아요. 4대 강 공사를 시작할 때도 계속 울면서 다니고, 지난해 희망버스도 ‘한복숨이 저 크레인 꼭대기에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잠잘 수 없었다’

“봄이면 신경 쓰지 않으면 불편할 일들이 해마다 우리 사회에 생기는 것 같아요”
4대 강, 고공 크레인, 강정마을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잠잘 수 없었다

도 않게 밥 먹고 잠자고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마음에 울고, 이번 강정마을 일도 마찬가지고. 꼭 그러려는 건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안 될 일이 연이어 생기네요.” 세상은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꾸는가, 온몸이 축수인 시인은 ‘작은 힘’ 들이지만 모이고 인연이 만들어지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더라 희망을 이야기한다.

“세상에 문제는 너무나 많고, 그 문제에 모두 반응하며 바깥일에 쫓겨가다 보면 내 안의 평화가 이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잖아요. 내 방에서 만든 에너지를 세상에 흐르게 하면서 자연스레 인연을 만들고 도움 되는 일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내 에너지가 너무 빨리 소진되고 나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 물 흐르듯이 마음이 가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힘에 부친다 싶으면 일러 내 자리, 내 방, 내 중심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일만 하나씩 동참할 뿐인데도 이렇게 바쁘네요.” 두 차례 강정마을에서 오



“이 땅이 근래에 와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성찰을 잊은 개발 때문에 온 땅이 피흘리고 신음하고 있다”며 가슴 아파하시던 법정 스님을 떠올리는 김선우 시인. 한번도 뵈지 않은 스님을 꼭 뵈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 귀한 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것으로 흥분했다.

는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꺼낸 말씀이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충분히 맑아질 수 있다는 김선우 시인.

“스님들 말씀처럼 꼭 의도를 가지고 ‘뭘 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모든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때가 되어 ‘나’라는 그릇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가다 보면, 딱 맞춰 내 힘이 필요한 인연이 다가와요. 그러면 가까이 그 일을 하면서 커지는 삶이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데, 제게는 지금 같아요.”

4대강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한진중공업 사건으로 높은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간 목숨 때문에 눈물짓고, 강정마을을 구원비에 오르며 가슴을 찡는 시인을 말쑥하게 바라보면서 전사戰士라고 여겼다. 그런데 막상 마주한 시인에게 전사戰士가 없다. 그동안 안 풀어진 (내 허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이나 (도화 아래 잠들다) 같은 시집을 보면서 흥미를 떠올렸는데, 현품대조를 한 시인은 해사한 청매 같다. 촛불집회 이야기를 담은 소설 《캔들 플라워》부터 지난해 나온 오로발에서 보낸 편지 (어디 아픈 데가 없냐고 당신이 물었다)에 이은 이번 시집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로 이어지는 흐름이 탈속이였

스님책을 삶의 표지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세계 어디를 가든 만나게 돼요
‘스님 입적’ 문자받고 가슴이 먹먹
빈적도 없는데 일간지에 추도사 써

을까? 답백하고 가녀린 한 마리 하얀 나비처럼 나뭇이 앉아 있는 시인은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볍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돌아오는 길 시인이 쓴 첫 소설 《나는 춤이다》를 떠올리며 빙긋 웃었다. 시인은 소설에서 전설이 된 최순 최승희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려냈다.

“뛰어놀던 어린 시절 산야는 어디나 춤과 음악이 가득했다. 나무들은 지칠 줄 모르는 춤쟁이들이었고 구름들이 보여주는 온갖 몸짓은 한나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라보아도 배고픈 줄 몰랐다. 여자가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고, 모르는 그 세계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들이 모두 익숙한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단지 땅속을 제외하고 말이다. 세상은 춤이구나..... 몸을 가진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어떤 형태로든 춤을 추고 있었다.” 고향마을에서 뛰놀던 어린 선수를 되살려 그려냈으리라.

늘 내면세계로 들어가 맑은 교묘를 생성했기 때문일까? 세상이 한바탕 춤이라는 걸 일찍이 깨달은 탓일까. 4대 강으로, 희망버스로, 강정마을로 콧공거리

며 다니는 소란 가운데서도 맑음을 잃지 않았다. 조그만 몸 어느 구석에서 그런 에너지가 샘솟는 것일까. 목소리가 맑고 가녀린 시인은 말끝마다 까르륵 웃음을 터뜨린다. 요정처럼.

나그네는 글을 쓸 때 3인칭 어법을 쓰지 않는데 김선우 시인에게겐 웬지 ‘그녀’라고 불러야 할 것만 같다. 고을 여흥, 곧은 웃대를 뜻하는 음률, 여름, 말갈게 거를 여흥, 넉넉한 여흥, 나누어 줄 여흥, 같은 여흥...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중학교 때 지금은 출가해서 스님으로 사는 둘째 누이 서가에서 (무소유)를 만나 법정 스님을 처음 뵈었어요. 문고판으로 나온 그 얇은 책. 그 뒤로 법정 스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가 30대 중반이 되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보면 법정 스님과 맞닿아요. 인도 실험도시 오로발 Auroville에 갔을 때도 한국인 오로발리언들을 만났는데, 여행자는 점이 많으니까 책을 몇 권 지니지 못하잖아요. 몇 권 되지 않는 책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법정 스님 책이에요. (무소유)가 없으면 마치 눈 손목에 걸고 다니던 염주를 잃어버린 것처럼, 평정을 잃고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랄까?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모두 법정 스님을 만나 뵈었느냐 하면 아니에요. 책에서만 법정 스님 뵈고, (무소유) 같은 책을 자기 삶에 특별한 표지처럼 늘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나게 돼요. ‘법정 스님이 책을 쓰지 않고 그저 승려생활만 하셨더라면 이런 영향력을 가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귀한 분이 어떤 분이 세상에 미치는 많은 영향들, 만들레 숨뒀처럼 곳곳으로 날아가 스며든 인연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뵈 적이 없어도.”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한동안 그랬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세계일보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법정 스님 추도사를 아무래도 김선우 시인이 써야겠다고. ‘저는 스님을 한 번도 뵈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무리 돌아봐도 김선우 시인이 써야하겠더라고요 한 더군요.” 문자를 한 수녀님도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나 법정 스님 책 《무소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마음을 연 소중한 인연이었다.

“흰 눈 덮인 낮은 한옥 지붕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볍게 덮였구나.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다. 지붕의 살갓처럼 눈이 희구나.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다. 삼월에 내린 눈 위로 ‘봄 햇살’이라고 할, 꼭 그런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 있으려는가.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지붕들이 어찌보다 조금 더 가벼워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햇살에 몸이 달고 아지랑이처럼 화하는 눈의 입자들이 허공을 촉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법정 스님 입적’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내가 참 좋아하는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자크지 울셋 4"
• 제본: 한장본 실재본 • 크기: 435mm×300mm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할인가 1,000 (100명 이상)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800 (100명 이상)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 (200명 이상)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 (60명 이상) 정가 250원
예수재함A(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정가 60,000원 예수재함B(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정가 70,000원
종이신발(남/여) 1컬레 100개 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한지점은 영가옷/위패 각 100개 30,000원 정가 4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 /방수등표대 할인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9.6cm×22cm
• 100매 • 250SW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cm) @2,700원 (50개 이상)
- 공단등(8cm) @3,300원 (50개 이상)
- 공단등(10.5cm) @6,000원 (24개 이상)
- 공단등(13cm) @12,000원 (12개 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 (4개 이상)
- 바림등(6cm) @2,700원 (50개 이상)
- 바림등(8cm) @3,300원 (50개 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 이상)
- 바림등(13cm) @12,000원 (12개 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 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cm) @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단 접등(10.5cm) 340,000원(100개)
- 비단 접등(12cm) 350,000원(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cm / 25cm / 30cm | 50cm 1m / 2m
5줄 이상 @ 65,000원 기타주류생산

LED전구 105,000원 [국산]
1BOX : 50개
색상: 초록색/주황색

봉축카드(21종) @ 300원 (1,000장 이상)
구성: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18.5×25.6cm
봉투: 19×13cm

연등(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7,000원/25,000원
연등/전등/노출/주황
발광/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로운 향기를 퍼뜨릴수 있을까’ 생각한 김선우 시인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마음먹었다.

수녀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햇살이, 흰 눈을, 건너고 있다. 종일거리면서 티브이를 틀었다. 화면 하단에 메시지가 보낸 뒤, 백팔 배를 울렸다. “그녀”가 세계일보에 쓴 추도사 ‘법정 스님을 보내며...’에서 보냈다.

‘수많은 생명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방곡곡이 땅이 근래에 와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성찰을 잃은 개발 때문에 온 땅이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다’며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던 법정 스님을 떠올리는 시인. “한 번도 빈 적이 없는 스님을 꼭 뵈고 싶다는 생각이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귀한 분이 어느 곳에 계시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특히 시를 쓸 때 ‘복’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써놓고도 내가 쓰긴 했으나 그냥 온 것이라는 느낌이예요.”

시가 남다른데 어디서 왔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고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전생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시를 쓸 때 ‘복’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써놓고도 내가 쓰긴 했으나 그냥 온 것이라는 느낌이예요.”

“전생인연들이 대한민국, 하필이면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목숨을 펴주었기에, 내가 아닌 것들이 무수하게 모여서 내가 되고, 그 바닷가, 그 강가, 그 나무 아래서 일찍부터 나무랄 말하고 구름이랑 말하고 떨어지는 햇빛 속에서 행복해하며 일찍부터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어느 순간 석류가 푹 터져 벌어지듯이” 시상시행이 터져 나왔다는 말씀이다. 그러려 모든 사람 앞에 선하고도 존귀한 씨앗들이 발현해 세상은 아름답다고 여기던 시인. 그 아름다운 세계가 대학교 1학년 때 광주 향경 사진을 보면서 무너져 내렸

지구 끝이 보이는데 마구 써대는 씌씀이 내 돈, 시간을 들여가며 섣뽕 나선 사람들 당신이 바로 부처, 공허한 말 아니예요 분명 우리에겐 연화장 씨앗 있어요

다. “아름답고 착한만 있을 것만 같았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과 불의를 보면서 인간 속에 깃든 부정과 불의, 이것들과 어떻게 맞서야 하나 고민하며 대학교 4년을 운동권으로 살면서 거칠게 싸웠어요. 두 극단 요소가 한꺼번에 제 인생을 뚫고 지나갔어요. 하나는 내부에 있는 선한 씨앗에 대한 절대 믿음과 그 반대를 겪으며 살아내야 하는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존재에 대한 요소들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시 쓰는, 글 쓰는 김선우를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글쟁이를, 특히 시인은 그저 순수한 무엇인가를 바라는 모양이 있다. 이슬 머금은 꽃 같은 줄 알았던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거친 발언을 하고 가슴 아파하면, 대중들은 그런 행동을 이해하면 서도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순수함을 견지할 것이냐, 후회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자.’ 마음먹었어요. 내 글을 통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글쟁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로운 향기들을 널리 퍼뜨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죠. 가장 좋은 방식은 법정 스님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불처럼 자연스럽게 스미는 걸 텐데.”

불교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절정과 인연이 깊던데. “의도가 없어요. 굳이 운명 지어진 까닭을 물어보자면, 저희 집 가족계획에는 원래 제가 없었어요. 큰 오빠가 중학교 때 사고로 죽으면서 갑자기 딸만 셋이 남게 되어, 이 집안에 남아를 생산해야 한다는 놀라운 사명을 띠고 어머니가 명산대찰을 찾다니면서

9년이란 오랜 기도 끝에 제가 태어났어요. 게다가 스님이 되어 출가한 둘째 언니랑은 특히 어려울 때부터 많은 얘기를 나누며 교감이 커서 불교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열한 살 차이 나는 둘째 언니 서가에 꽂혀있던 책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둘째 언니는 불교, 셋째 언니는 기독교, 아버지는 유림儒林, 할아버지는 동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랑 다양한 종교 성향을 가진 식구들 사이에서 김선우는 중립을 지켰다. 그래서일까. 시인은 불교를 종교라기보다 인류가 가진 가장 매력 있는 철학사상으로 받아들인다. 불교철학은 지구환경이 직면한 21세기 위기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구할 가장 강력한 대안철학이라면서.

사람이 갈 수 있는 끝, 지구 끝이 보이는데도 마구 써대는 씌씀이, 지구를 쓰고 있는 패턴을 보면서, “200년 뒤에 지구가 멸절할까” 하는 비판론이 20대 시인 김선우를 지배했다. “지난해 희망버스에 오른 사람들이 모두 평범한 생활을 하던 분들이예요. 그곳에 갈 때 내 마음이 그랬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목숨이 있기 때문에 섣뽕 나섰더라고요. 아무런 계산 없이 내 돈,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네.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씨앗들을 더 예쁘고 더 자유롭게 피어내는데 내가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환희로워요. 분명 우리에겐 연화장 씨앗이 있고, 부처님 씨앗이 있어요. ‘당신이 바로 부처’란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예요. 그 씨앗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죠.” 석가모니나 예수, 신라에 나뉠 붓다라는 원호.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숨 쉬던 법정 스님도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씨앗을 발견하고 씨를 틔우려고 애쓰셨으리라. 이 봄, 흙이 몸살을 앓는 덕분에 세상이 온통 잎과 꽃이다.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길.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골든벨

학생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인기 프로그램이 ‘골든벨을 울려라’이다. 학교마다 백 명의 학생들이 출연하여 문제를 맞혀가는 내용이다. 어드레 잡 풀다 보면 많은 참여자들이 탈락하여 장외에 나앉게 된다. 그때 구원투수가 등장하는데 다음 아닌 장내에 남았던 몇 안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수 십 명의 동료들을 구출하여 같이 문제를 풀어간다. 최종 선 번째 문제를 맞혀야 드디어 최종 우승자로서 ‘골든 벨’을 울리는 기쁨을 안게 된다.

개나리의 전설이 시사하는 바 크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탁발승이 시주를 갔다. 그 주인은 ‘우리 집에는 개풍도 없소’라며 문전박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웃 집 가난한 사람은 정성껏 시주를 했다. 그러자 탁발승은 짐으로 바꾸니 하나를 만들어 주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떠났다.

우리 정서에는 종이라고 하면 ‘에밀레 종’이 쉽게 떠오른다.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한다. 경덕왕은 선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봉덕사에 큰 종을 만들 길 간청하였다. 무게가 만 구천 키로그램이니 당시의 주조술로는 엄청난 대작불사임을 알 수 있다.

그 바꾸니 속에는 신기하게 계속 썬이 쏟아져 나와 가난했던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잣집 주인이 몹시 원통해 하였다. 이듬해에 그 탁발승이 예전처럼 부잣집으로 시주를 나갔다. 그 주인이 전과는 달리 흔쾌히 쌀을 시주하자 역시 짐으로 바꾸니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기대에 부응 부잣집 주인이 열어보니 그 속에는 쌀 대신 개풍이 가득 들어 넘쳐나고 있었다. 놀란 주인은 허겁지겁 그것을 울타리 밑에 묻어 버렸다. 거기서 개나리가 자라나 꽃을 피었다고 한다.

벌떼가 날고 들 때의 웅웅웅... 소리가 수 십리 밖에까지 멀리 전달되는 것은 진동이 다른 두 개의 소리를 나오게 하는 맥놀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일본의 종에서 보기도 문 현상으로 우리 주조술의 우수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인색한 부자 “우리집엔 개풍도 없소” 이듬해 탁발승에게 쌀 시주하고 받은 바꾸니에는 개풍만 넘쳐 개풍 묻은 곳서 핀 개나리꽃 전설

종을 주조 할 때 있었다는 아기의 사연은 ‘에밀레, 에밀레...’라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로 그 여운을 남기니 그 애절함이야 어찌하랴. 종각에 안치된 범종은 지옥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한다. 조석으로 종을 쳐 지옥고를 받는 중생을 구원하고 있으니 범종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 전설에서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 집에는 개풍도 없소’라고 인색한 말을 한 부자의 표현은 현실에서 씨가 되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했다면 소통이 잘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기적인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 잘 드러나고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의 정성은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리하여 감동은 가난을 탈피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이타적인 삶의 표본이라 하겠다.

무대에 설치된 소품 ‘골든 벨’은 황금색으로 치장된 휘황찬란한 종이다. 그러한 종을 우리말로 ‘개나리꽃’을 이르는 말이다.

인간이 끊임없이 탐내는 물욕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자연이 아닐까. 계곡의 물소리에서 다름이나 경쟁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질서가 있다. 시샘도 없다. 필만큼 피었다 지는 목련의 모습에서 순응을 배운다. 진달래꽃은 노란 개나리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철쭉에게 자리를 내주는 미련을 보인다. 조금 더 있다 보면 이 대지에는 청이 있고 녹이 있고 적이 있고 백이 있으리라. 게다가 매화, 라일락의 향기가 훈풍과 함께 날아올라 오면 어떻게 맞을까. 벽간 마음이 땀 뚝뚝 개나리꽃 모양 같아야겠지.

개나리 꽃을 연교(蓮翹)라 부르기도 하고, 영춘화(迎春花)라고도 한다. 연교라는 말도 그럴싸한 표현이다. 보통 3~4미터 길이로 줄기가 뻗어 위로 솟지 않고 땅을 향하여 피는 모양이 꼬리가 긴 깃털을 늘어뜨린 새의 깃털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이다. 이 봄에 희망의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

개나리는 어디다 저 맑은 색소를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전(至賤)으로 내뿜는 것일까. 산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쉬 볼 수 있다. 담장을 감싸 안기도 한 개나리꽃. 열은 처자(處子)물을 들었을까 아니면 어느 부지런한 화공이 놀라운 붓놀림으로 간밤에 색칠해 놓고 간 것일까.

요즘 같은 절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개나리꽃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치는 행인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아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넘어 색이 탈색될까봐 품에 간직하기도 하고 조막으로 호호 불며 간직했다가 봄을 맞았을 때 영춘화가 아닐까.



사진=고영배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58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구단연등(고리용)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전선지초(명사용) 탈피이 방식
▶ 방생, 탐불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A/S 최속 전선 10년 5년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